



정동원 학장, 군산대에 1000만원 장학금 기부

새해 첫 날 국립군산대학교 발전을 위한 장학금 기부 릴레이가 시작됐다.

국립군산대학교 정동원 컴퓨터소프트웨어특성화대학장은 지난 3일 오전, 대학 발전과 학생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대학 본부 총장 접견실에서 열렸으며, 최연성 부총장을 비롯해 엄기욱 교무처장, 김효중 교육혁신처장, 오연풍 학생처장, 오정근 기획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동원 학장은 SW중심대학사업단 총괄책임자 및 사업단장을 맡고 있으며, 이 기부한 장학금은 메타포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체 DNA를 갖춘 META형 AI·SW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참여학과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정동원 학장의 기부를 시작으로 보직 교수들과 단과대학 학장들이 참여하는 장학금 기부 릴레이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 지원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춘향골 바래봉 파프리카 영농조합, 윤봉음에 성금

남원시 윤봉음 관계자는 관내 춘향골 바래봉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회원들이 성심성의껏 모은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영농조합법인은 31개 농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파프리카를 지역 대표 특화 작물로 키워냄과 동시에 해외수출 판로 개척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환원에도 노력하고 있다.

박태성 회장은 "매년 이웃돕기 성금에 한마음으로 참여해 주는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윤봉음에는 이외에도 읍 생활개선회(회장 김정아) 30만원, 전춘마을 주민 20만원, 신가마을 주민 30만원 등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면서 더욱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마트타운 금동점, 금동에 생필품 전달

남원시 금동 관계자는 관내 마트타운 금동점(대표 김한세)에서 지난 2일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해왔다고 3일 밝혔다.

마트타운 금동점은 지난해에도 나눔을 실천했으며, 이번에 전달한 물품은 화장지(30롤) 40개와 라면 30박스(환가액 100만 원) 등이며, 물품은 지역 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한세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노환순 금동 동장은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준 김한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씨케이안전유리, 남원시에 성금 1000만원 기부

남원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주)씨케이안전유리(대표 최호림)에서 성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씨케이안전유리는 2020년 설립 후 남원시 일반산업단지에서 2021년부터 가동 중인 안전 강화 유리 제조 업체로, 이번 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호림 대표는 "남원시민의 성원 속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생각하며 소중한 성금을 기부해 주신 (주)씨케이안전유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3년 연속 고액기부자 · 장학금 기부자 기록

이정권 디에이치 글로벌 대표, 4025만원 부안군 기탁

부안군은 지난 2일 생활가전 전문업체 (주)디에이치 글로벌 이정권 대표가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2025만원 등 총 4025만원을 기탁하며 남다른 고향사랑의 열정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정권 대표는 이날 기탁으로 3년 연속 제1호 고향사랑기부제 고액기부자와 3년 연속 제1호 장학금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정권 대표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00만원씩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한도 금액을 기부한데 이어 기부금 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된 첫해인 올해에도 최고 한도 금액을 기부했다.

부안군 상서면 출신인 이정권 대표는 타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 중이며 평소 인재 양성에 관심이 많아 근농인재육성장학금을 매년 꾸준히 기부하고 있으며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매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군의 복지와 공익사업을 지원해 왔다.

이번 기부는 기부금 한도 상향 이후 첫 사례로 지역사회 나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 귀감이 되고 있다.

이정권 대표는 "부안은 제가 자라는 소중한 고향이자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곳으로 2025년



첫 기부자로서 부안의 더 큰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향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정권 대표의 3년 연속 고액기부는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2000만원 기부는 기부금 한도 상향 첫해의 상징적인 사례로 다른 기부자들에게도 큰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양오봉 전북대 총장, 대학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양오봉 총장이 2025년 새해를 맞아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며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양 총장은 취임 이후 매년 1천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2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기증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부의 뜻을 기리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양 총장은 "올해는 푸른 댐의 힘찬 기운이 깃든 해로 이 기운을 받아 우리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



큰 발전을 이루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지역과 국가를 선도하는 중심 대학으로 우뚝 서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안국찬 대외·취업부총장은 "총장님의 기부는 대학 구성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기탁된 발전기금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생 복지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음=김대환 기자

남원시, 남원의료원과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추진 협약

남원시는 지난 3일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상호협력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자원 활용 연계와 재택의료 서비스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거동이 불편한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고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게 된다.

남원시는 시범사업 수행에 공공의료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중증질환자에 대한 응급체계 구축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군 봉동생강골파크골프클럽, 성금 기탁

완주군 봉동생강골파크골프클럽(회장 류건옥)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100만 원의 성금을 봉동읍에 기탁했다.

회원들은 봉동생강골파크골프장과 인접해 있는 봉동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뜻을 모았다.

전달받은 성금은 봉동주공아파트 이장과 논의해 지역주민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될 예정이다.

류건옥 회장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협조로 생강골파크골프장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윤당호 봉동읍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연발연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임점숙 노인장애인과장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불교계 등 기업의 이웃사랑 이어져

정읍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내장사(대표 대원 주지스님)는 지난 3일 성금 500만원과 백미(10kg) 50포를 정읍시에 기탁했다. 같은 날 (주)가나코지이상공사(대표 최정환)도 성금 15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내장사가 기탁한 백미는 주민센터 추천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내장사 총도감 무성스님은 "작은 정성들이 하나하나 모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나눔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가나코지이상공사의 최정환 대표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성금을 준비했다"며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7개 단체 인권 캠페인 개최

정읍지역 7개 단체가 지난해 12월 31일 정읍역 광장에서 차별과 폭력 근절, 인권 보호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에 이어 인권의 가치를 재차 강조하며 시민들과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비산계엄과 포고령에 대해 단체들은 "민약 실행했다면 국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었다"며 "계엄령 해제에 대해 천만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캠페인에는 △정읍시소통기자단(회장 최형영) △정읍시민권지킴이단(회장 박소현) △인권옹호연맹정읍지회(회장 김현영) △정읍목련리나온스쿨(회장 박금자) △정읍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학주) △정읍시민경찰연합회(회장 유달화) 등 7개 단체가 참여해 적극적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캠페인은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 단체들은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인권 침해 사례와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춘포초 학생자치회, 여객기 참사 성금 10만원기탁

춘포면 행정복지센터는 춘포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일동(회장 최동욱)이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애도하며 10만 원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춘포초등학교 학생들은 공연을 선보이는 등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 경로당 어른들은 손주 같은 이들의 재롱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조금씩 용돈을 쥐여 주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 용돈을 뜻깊게 쓰고자 고민하다 마음을 모아 기부를 결정했다.

기탁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지역 어르신들 위해 공연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주신 용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일어난 항공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곽경원 춘포면장은 "나눔을 실천해 준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기탁금은 항공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해 전달될 것이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아이들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남원 미꾸리추어탕 협동조합, 여객기 참사 유족 위로

남원 미꾸리추어탕 협동조합(대표 김병섭)은 지난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무안 공항을 방문 유족들을 위해 남원 미꾸리 추어탕 800인분(식가 500만원 상당)을 전달하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병섭 남원 미꾸리추어탕 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한 대한적십자봉사회 전북특별자치도 정하복 회장 등과 3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석했다.

김병섭 조합 대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대참사가 일어나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며, 비통함에 절망하고 계실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따뜻한 추어탕을 전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정하복 회장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가슴이 아프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배식을 도왔다. /남원=김기두 기자